

보도시점 2026. 9. 10.(목) 06:00
2026. 9. 10.(목) 석간

배포 2026. 9. 9.(수) 14:00

K-동물보건 기술로 국제 협력 선도한다

- 검역본부, 아태지역 세계동물보건기구 회원국 대상 동물질병진단 워크숍 및 항생제 내성 기술훈련 개최로 원헬스 국제 협력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북 김천시 소재 검역본부에서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 12개국 18명의 실무자가 참가하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이하 ‘WOAH’) 표준실험실 동물질병진단 워크숍」과 「검역본부·세계동물보건기구 공동 아태지역 수의 항생제 내성 기술훈련」을 개최하였다.

동물질병진단 워크숍은 검역본부가 보유한 8개 ‘WOAH 표준실험실*’ 및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WOAH 협력센터(Collaborating Centre)’의 선도적인 진단기술을 아태지역 회원국에 전수·공유하는 국제행사다. 2012년 시작된 이래 13회째를 맞이한 본 행사는 주요 동물질병의 최신 진단법과 방제 전략을 교육하며 아태지역 수의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 공조 체계 구축에 기여해 왔다.

* 세계동물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지정 현황(연도): 브루셀라(‘09), 뉴캐슬병(‘10), 사슴만성소모성 질병(‘12), 광견병(‘12), 일본뇌염(‘13), 구제역(‘16), 살모넬라증(‘18), 조류인플루엔자(‘20)

아태지역 8개국* 12명의 실무자가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요 8개 동물 질병**을 중심으로 이론 교육(13시간)과 실습(15시간)을 병행하여 참가자들의 진단 기술 역량을 한층 높였다. 특히 구제역 현장분자시스템 등 검역본부가 자체 개발한 선진 진단 기술을 공유하여, K-동물보건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적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 참가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네팔, 피지, 대만, 필리핀

**** 교육 대상 질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구제역, 브루셀라병, 살모넬라증, 일본뇌염, 광견병,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항생제 내성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을 위협하는 글로벌 원헬스(One Health) 문제로, 검역본부는 WOAH와 함께 아태지역의 체계적인 검사·분석 역량 함양을 위해 2023년부터 항생제 내성 국제 기술훈련을 실시하여 올해 4회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훈련은 WOAH 아태지역사무국과 검역본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6개국*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균 분리·동정부터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활용까지 전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 6월 검역본부가 WOAH 육상동물 항생제 내성 협력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기술훈련의 전문성과 국제적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참가국: 몽골, 동티모르, 태국, 부탄, 필리핀, 캄보디아

최정록 검역본부 본부장은 “동물질병 진단과 항생제 내성 대응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가 원헬스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WOAH 표준실험실 및 협력센터를 통해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선진 진단·방역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의 보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세계동물보건기구 동물질병진단 워크숍·항생제내성 기술훈련 사진

담당 부서 <총괄>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	책임자	과장직무대리	노인순 (054-912-0703)
		담당자	연구관	김재조 (054-912-0703)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책임자	과 장	조윤상 (054-912-0722)
		담당자	연구관	김하영 (054-912-0738)

붙임

세계동물보건기구 동물질병진단 워크숍 항생제내성 기술훈련 사진

<동물질병진단.항생제내성 워크숍 실습 사진>

<동물질병진단.항생제내성 워크숍 단체 사진>